



2024 중국 (길림) - 한국 경제무역 교류회 개막식 장춘서

호옥정 참석하여 축하

8월 30일, 2024 중국 (길림) - 한국 경제무역교류회 개막식이 장춘에서 거행되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참석하여 축하를 했다. 부성장 양안제가 개막식을 사회했다. 성정협 부주석 리통희와 성정부 비서장 류화문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호옥정은 우선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환영을 표하고 나서 오래동안 중한 협력을 촉진하고 길림 진흥을 지지하는 각계 벗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과 한국은 지연이 가깝고 인연이 친하며 상인이 서로 통한다. 최근년간, 양측은 '정부와 민간의 교류를 상호 보완하고 경제무역과 인문 협력

행'하는 량호한 국면을 형성하였으며 공동으로 '좋은 이웃은 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는 미담을 써왔다.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길림의 진흥 발전은 현재 '상승기', '쾌속차도'에 처해있으며 쌍방의 협력 공간은 광범위하다. 길림은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와 농업대성, 생태강성으로서 현재 길림은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을 고조하고 혁신형 성장의 건설을 다그치며 길림 특색 우세를 가진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진흥 발전에서 새로운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양측이 중한 량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구역 전면 경제 파트너 관계 협정 (区域全

面经济伙伴关系协定)>을 한층 더 잘 실행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가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가도록 공동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산업협력을 한층 더 확장하고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신소재, 현대농업, 병설관광, 의약, 의료미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여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 민간교류를 한층 더 심화하고 우호도시를 뉴데로 삼으며, 청소년, 과학연구 기구간의 교류와 왕래를 강화하여 우정의 씨앗이 더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길림성 당위와 성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원탁회의의 기제를 보완하여 얼굴을 맞대고 한국 자본 기업을 위해 실제적

'오대징 국토수복 기념' 현판 및 연변 2024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가동식 거행

호가복 오원경 현판



9월 1일, '오대징 국토수복 기념' 현판 및 연변 2024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가동식이 훈춘에서 거행됐다.

상황에서 명령을 받고 변강에 가서 자리로써 대표와의 계선 측량 단판에서 토지패를 다시 세우고 훈춘 흑룡지 지방을 회수했으며 두만강어구 출해권을 따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과 오대징의 후손 오원경이 가동식에 참석하여 현판했다.

행사후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고 국방교육을 심화하자'는 내용을 경청하고 발해 고진 부도통어문 (副都通雅門) 건설 상황을 현장 조사했다.

이른아침, 오대징기념광장은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참가자들은 정연하게 대렬을 맞춰 영웅에 대한 존경과 숭엄한 태도로 오대징의 공적과 영웅적인 장거를 깊이 기리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훈춘시당위 서기인 성효유 (盛效儒)가 행사를 사회했다. 성정신문명건설판공실 전임 부주임 주맹재, 훈춘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이며 훈춘해양경제발전시범구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립국과 주당위 관련 부비서장, 주 직속 기관 관련 부서 주요 책임자, 훈춘시 여러 부문, 향진, 가두 책임자, 서부계획 대학생 자원봉사자 대표, 연변대학 훈춘캠퍼스 신입생 대표 등 30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10시 12분경 행사가 시작되었다. 성문관광광청 청장 손광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오원경이 각각 연설하고 호가복과 오원경이 '오대징 국토수복 기념' 현판을 했다. 료해에 따르면 청나라 광서년간에 당시 흡차회 복양사무대신이며 도차원 좌부도어사였던 오대징은 위급한

료해에 따르면 청나라 광서년간에 당시 흡차회 복양사무대신이며 도차원 좌부도어사였던 오대징은 위급한

제 19 회 중국장춘영화제 원만히 폐막

9월 1일 저녁, 제 19 회 중국장춘영화제 폐막식 및 시상식이 장춘국제영화성 금색대청에서 거행되었다. 많은 영화인과 영화팬들이 모여 '금록상' 선정 결과의 발표를 함께 목격했다.



▲ 9월 1일 저녁, 제 19 회 중국장춘영화제 폐막식 및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사진은 오프닝쇼 공연 - 빛과 그림자의 려행 <원>의 한 장면이다.

제 19 회 중국장춘영화제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992년에 세상에 고고성을 올린 중국장춘영화제와 '금록상'은 길림성 장춘이 지속적으로 구축한 문화의 '금명함'으로서 한차례 또 한차례의 다듬기를 거쳐 빛과 그림자의 식별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도시의 빛', '별하늘에서 그림자 찾기' 등 영화 전시 상영 행사는 춘성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다. 제 7 회 중국영화제와 제 1 회 중국영화제자 정상회의, '룬구구본' 세미나 등 고급 교류 행사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수많은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장춘영화의 밤' 영화 주제 교향음악회, 모두가 영화노래 부르기, 거리 영화음악 카니발 등 대중 행사는 대중들이 영화문화의 '정서적 가치'를 공유

하도록 했다. '금록상' 재개는 신인 신작을 조력하고 문화산업은 투자유치 성과가 주렁졌으며 대상 계약 작치는 분초를 다투었다... 5일 동안 영화와 도시는 서로 정의하고 서로 개발하며 중국 영화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무한한 상상공간을 열어놓았다. 시상식에서 빛과 그림자의 려행 <원>의 오프닝쇼와 함께 로, 중,

청 3 대 영화인들이 모두 빛과 그림자의 데이트에 참가하여 '금록상'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영화 <지원군: 웅병출격>이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하고 영화 <인형뽑기>가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제 20 조>의 감독 장예모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 길림일보

'금록상' 수상자 명단

- 최우수영화상: <지원군: 웅병출격>
- 심사위원대상: <인형뽑기>
- 최우수작가상: <분노의 바다를 건너다>의 조보평, 연합극작가 무피피, 초화정.
- 최우수감독상: <제 20 조>의 장예모
- 남우주연상: <우리 함께 태양을 흔들어요>의 팽옥창
- 녀우주연상: <우리 함께 태양을 흔들어요>의 리경희
- 최우수촬영상: <강가의 착오>의 정마
- 최우수음악상: <눈표범>의 더거차이랑
- 최우수편집상: <목살>의 장치임, 주원.
- 최우수대우상: <나는 폭풍을 거쳤다>의 진해연

2024 제 1 자동차 흥기 장춘 마라톤경기 개최



9월 1일, 2024 제 1 자동차 흥기 장춘 마라톤경기가 장춘스포츠허에서 열렸다. 31 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3만명의 선수들이 북극 춘성에 모여 가을을 뜨겁게 달궜다.

속된 경기에서 여러 관련 부문과 단위들은 협력하여 전면적이고 고품질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했다. 주최측은 의료보장,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면에서 대회의 진행과 선수들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 길림체육학원 경기의 완주 메달은 장춘의 이니셜 'C'와 흥기자동차, 필름, 영사기 조명 등 주요 요소를 사용하여 자동차 도시, 영화도시, 조각도시로서의 장춘의 문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특한 도시적인 대회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다. 근 4,000 명 배우들은 선수들로 하여금 장춘의 활력과 열정을 느끼게 했다. 달리기 려행으로 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영예메달로 한달락의 분투와 견지의 시간을 증명한다. 2024 제 1 자동차 흥기 장춘 마라톤 경기의 완주 메달은 장춘의 이니셜 'C'와 흥기자동차, 필름, 영사기 조명 등 주요 요소를 사용하여 자동차 도시, 영화도시, 조각도시로서의 장춘의 문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특한 도시적인 대회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道格拉斯·基梅利·基普鲁古特)가 2시간 16분 39초로 마라톤 남자부 우승을 차지하고 에티오피아의 케베 데 반티 메코네 (凯贝德·班蒂·梅科内内)와 케니아의 시몬 키프코스 게 (西蒙·基普科斯盖)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의 메르키투 보크네 그레메 (梅尔基图·沃克内·格雷梅)가 2시간 36분 48초로 마라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고 에티오피아의 비루크 타미 키아 (比鲁克·塔米尔·基亚)와 케니아의 무리우키 나오미 만부이 (穆里乌基·娜奥米·万布伊)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 길림일보

오전 7시 30분, 출발 신호와 함께 3만명의 선수들이 장춘 마라톤경기를 시작했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 하프마라톤, 건강달리기로 나뉘었으며 코스는 지난회 대회를 기반으로 최적화 승격을 하여 참가 선수들이 달리의 즐거움과 장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차례 마라톤경기의 배후에는 전심전력으로 도시를 지키는 '도움단기 (助跑)'들이 있었다. 몇시간 동안 지

우리 나라 각급 각 유형 교사 총 1891.8 만명

8월 29일 오후, 국무원이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관련 책임자는 최근 발표된 <교육자 정신 발양과 새시대 고품질 전문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교육부 부부장 왕가희는 <의견>이 출범한 배경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 각급, 각 유형 교사는 총 1,891만 8,000명이다. 이 교사대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의견>은 우리 나라가 교육대국에서 교육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력학적 시점에 교육자 정신을 발양하고 교육강국을 뒷받침해주는 고품질의 전문화 교사대오 구축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 포치를 진행한 강령성 문건이다. 왕가희는 <의견>은 새시대 교사대

오 건설의 총체적 목표를 두개 단계로 나누어 달성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단계는 3~5년의 노력을 거쳐 교육자 정신을 크게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전문교사대오 건설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덕을 쌓고 수심하며 경연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을 길러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강해지도록 한다. 두번째 단계는 2035년까지 교육자 정신이 광범한 교사들의 자각적인 추구가 되게 하고 교사대오의 관리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교사 발전에 대한 디지털화의 에너지 부가 상시화되고 교사들의 지위가 공고화되고 향상되어 교사가 사회적으로 가장 존중받고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중 하나로 되게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길림성 3개 집단 6명 개인 '전국 과학보급사업 선진'으로

최근, 과학기술부와 중공중앙 선전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전국 과학보급사업 선진집단과 선진사업자를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길림성의 3개 집단과 6명 개인이 '전국 과학보급사업 선진집단', '전국 과학보급사업 선진사업자' 칭호를 수여받았다.

기술협회 과학기술보급부이다. '전국 과학보급사업 선진사업자' 칭호를 수여받은 6명 개인으로는 갈홍려 (백산시 립강시흥광중학교), 리해룡 (중공 길림시위 선전부 선전교육처), 강단 (길림성과학기술정보연구소), 왕전맹 (길림대학제 1병원), 한영림 (길림성 과학보급봉사중심), 손생 (길림성 과학기술정책및혁신체제건설처)이다. 한편 전국에서 도합 195개 집단과 302명 개인이 해당 영예를 받아냈다. / 유경봉기자

길림성에서 '전국 과학보급사업 선진집단' 칭호를 수여받은 3개 집단은 각각 장광위성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장춘중국광학연구기술회사, 길림성과학